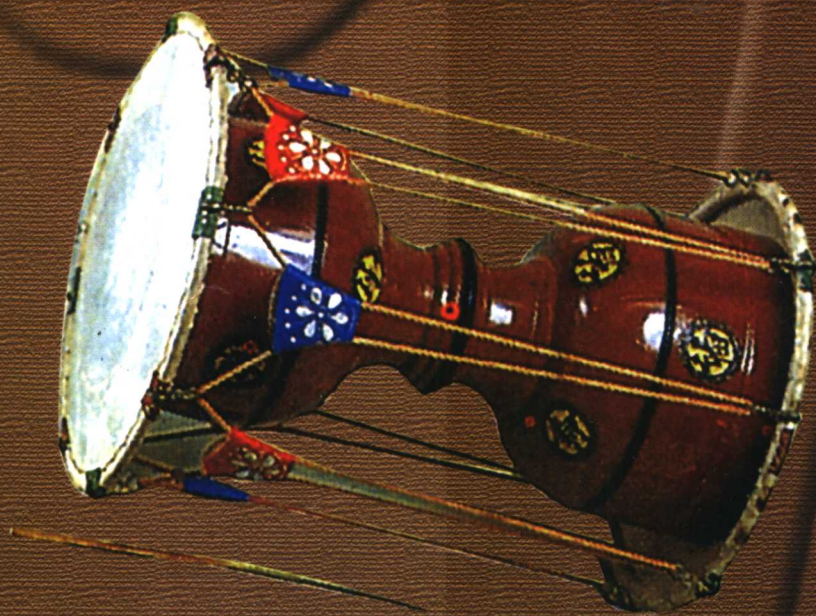


高级韩国语



主 编/崔羲秀

副主编/俞春喜 崔弘子



辽宁民族出版社

高级韩国语

(上)

主 编 崔羲秀
副主编 俞春喜
崔弘子

辽宁民族出版社

图书在版编目 (C I P) 数据

高级韩国语. 上/崔義秀主编. —沈阳: 辽宁民族出版社, 2002. 10

ISBN 7 - 80644 - 708 - 3

I. 高... II. 崔... III. 朝鲜语—教材 IV. H55

中国版本图书馆 CIP 数据核字 (2002) 第 087631 号

辽宁民族出版社出版发行

(沈阳市和平区十一纬路 25 号 邮政编码 110003)

朝阳新华印刷厂印刷

字数: 235 千字 开本: 787×1092 1/16 印张: 19
2002 年 10 月第 1 版 2003 年 12 月第 2 次印刷

责任编辑: 权春哲
封面设计: 杜 江

责任校对: 赵善玉
边京爱

印数: 1—1000

定价: 20.00 元

编写说明

《高级韩国语》(上)是《中级韩国语》的续篇。本教材与《中级韩国语》保持连续性、系统性,并为学生更准确地理解韩国语助词、语尾、词语所表示的语义,用韩国语做了解释。通过学习,能进一步了解韩国的文化,掌握更多的单词,增强阅读能力和理解能力。

本书共10课,每课都由课文、词语、语法与词语用法说明、韩国语语法知识课后练习、阅读课文等六个部分组成。书后附有已学常用语法的比较与辨析,以及课文中出现的新词语2073个、语法与词语使用说明101条。

本书在撰写过程中引用和参考了韩国和国内的有关教材和资料,在此不一一列举书名,谨表衷心的感谢。

在编写过程中,虽做了不少努力,书中难免有疏漏之处,请读者批评指正。

编者

2002年7月15日

차 례

제1과 마지막 수업.....	1
제2과 쿵이지(孔乙己).....	20
제3과 나무.....	43
제4과 환경 문제와 환경 보전.....	65
제5과 조선반도.....	83
제6과 방망이 깎던 노인.....	107
제7과 성숙한 인간.....	126
제8과 생활의 기쁨.....	147
제9과 우동 한 그릇.....	167
제10과 소나기	196
부록1 상용 조사, 어미의 의미와 용법.....	227
부록2 단어(2076개).....	257
부록3 문법과 단어 사용 설명(101개).....	292

제1과

마지막 수업

—어느 알자스 소년의 이야기—

알퐁스도데

하필이면 나는 아멜 선생님이 분사(分詞)에 대해 질문하겠다고 한 날 아침 지각을 하고 말았다. 분사에 대해 전혀 모르는 나는 꾸중을 듣게 될까 봐 매우 걱정이 되었다. 차라리 학교에 가지 말고 산으로 놀러 갈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럴 수는 없었다.

날씨는 맑고 화창했다. 숲 속에서는 티티새가 지저귀고, 제재소 뒤의 리페르 별판에서는 프러시아 군인들의 구령 소리가 들려왔다. 이 모든 소리들은 분사의 규칙보다 훨씬 감미롭게 유혹했지만 나는 그 유혹을 물리치고 학교를 향해 힘껏 달렸다.

면사무소 앞을 지나치는데 게시판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보였다. 벌써 7년 전부터 모든 좋지 않은 소식들, 즉 패전이나 징발, 프러시아 군사령부의 명령 등이 바로 이곳에 게재되고 있었다. 나는 달리면서 생각했다.

“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내가 막 광장을 지나가려는데 견습공과 함께 그곳에서 게시판을 읽고 있던 대장간의 바시텔 할아버지가 내게 소리쳤다.

“얘야, 그렇게 서둘러 갈 필요 없다. 어차피 지각은 하지 않을 테니까!”

나는 할아버지가 놀리려는 것이라 생각하고 숨을 헐떡거리며 아멜 선생님의 조그마한 교정으로 뛰어들어갔다.

보통 때 같으면 수업이 시작될 때는 길에서도 왁자지껄하는 소리가 들려 오게 마련이었다. 책상을 여닫는 소리, 제각기 잘 외우려고 귀를 틀어

막고 책을 읽어대는 소리, 거기다가 ‘좀 조용히 해!’ 하며 교탁을 두드리는 선생님의 큰 자막대기 소리가 큰길까지 들릴 만큼 떠들썩했다. 나는 이런 북새통을 틈타 선생님 몰래 살그머니 내 자리로 가서 앉으려고 했다.

그런데 그 날은 이상하게도 일요일 아침처럼 너무나 조용했다. 열린 창문 너머로 벌써 제자리에 앉아 있는 친구들과 그 무서운 쇠막대기를 겨드랑이에 끼고 왔다갔다하는 아멜 선생님의 모습이 보였다.

나는 하는 수 없이 문을 열고 이 어마어마한 고요 속으로 들어가야만 했다. 순간 나는 얼마나 창피하고 겁이 났는지 모른다.

그런데 뜻밖이었다. 아멜 선생님은 화를 내시기는커녕 나를 바라보시며 부드럽게 말씀하셨다.

“프란츠, 어서 네 자리로 가서 앉거라. 너를 빼놓고 수업을 시작할 뻔 했구나.”

나는 얼른 내 자리로 가서 앉았다. 두려움이 좀 가신 다음에야 나는 선생님이 성장을 하고 있는 걸 알아보았다. 장학관이 오는 날이나 상장을 수여하는 날이 아니면 입지 않는 멋진 초록빛 프록 코트에 잔주름이 잡힌 레이스 장식을 가슴에 달고, 멋진 수가 놓인 테 없는 검은 벨벳 모자를 쓰고 계셨다. 게다가 교실 전체에 뭔가 고요하고 엄숙한 기운이 감도는 듯했다.

언제나 비어 있던 교실 뒤쪽 걸상에 마을 사람들이 우리들처럼 조용히 앉아 있는 것이 무엇보다도 나를 놀라게 했다. 삼각모자를 쓴 오제 영감님, 은퇴하신 면장님과 집배원 아저씨, 그밖에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그들은 한결같이 슬픈 표정이었다. 특히 오제 영감님은 가장자리가 닳은 프랑스 문법책을 무릎 위에 펴놓고 커다란 안경을 그 위에 올려놓고 있었다.

내가 이런 모든 것에 놀라고 있는 동안, 아멜 선생님은 교단 위로 올라가서 나를 맞이할 때처럼 부드럽고 엄숙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여러분, 오늘이 내가 여러분을 가르치는 마지막 수업입니다. 이제부터 알자스와 로렌 주위 학교에서는 독일어만 가르치라는 명령이 베를린에서

왔습니다. 내일 새 선생님이 오실 것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프랑스 말 수업이니 아무쪼록 열심히 들어 주세요.”

이 몇 마디 말에 나는 정신이 아찔했다. 맙소사! 면사무소에 게시한 게 바로 이것이었구나. 마지막 수업이라니! 나는 이제 겨우 글자를 쓸 수 있을 정도인데. 그럼, 이제 영원히 프랑스어를 배울 수 없단 말인가!

여기에서 끝나야 하다니……. 새 등지를 찾아다닌 일, 사르강에서 열음을 지치느라 수업을 빼먹은 일 등 순간 그 동안 헛되이 보낸 시간들을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른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토록 무겁고 따분하게 느껴지던 문법책과 성서 등이 이제는 좀처럼 헤어지기 싫은 오래 사귄 친구처럼 친근하게 느껴졌다. 아멜 선생님 또한 마찬가지였다. 이제 떠나시면 다시는 아멜 선생님을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자 벌받은 일, 쇠자로 얻어맞던 기억들이 새삼스럽게 떠올랐다.

가엾은 선생님!

아멜 선생님은 이 마지막 수업을 위해 예복을 차려입은 것이다.

나는 마을 노인들이 왜 교실 뒤쪽에 와서 앉아 있는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다. 그들은 모두 학교에 좀더 자주 찾아오지 못한 것을 뉘우치고 있는 듯했다. 또한 40년 동안 봉사하신 우리 선생님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며, 사라져 가는 조국에 대한 자신들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와서 앉아 있는 것 같았다.

내가 이런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 왔다. 내가 외울 차례였다. 그 문제의 분사 규칙을 큰 소리로, 분명하게, 하나도 틀리지 않고 줄줄 외울 수 있기를 얼마나 바랐던가! 하지만 나는 첫마디부터 막혀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몸만 비틀며 서 있었다. 아멜 선생이 내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를 나무라지는 않겠다. 프란츠, 너는 이미 충분한 벌을 받은 거야. 결국 이렇게 되고 말았구나.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생각하지. ‘시간은 얼마든지 있어. 내일 배우면 되지 뭐.’ 그런데 그 결과는 지금 네가 보는 그대로란다. 아! 언제나 교육을 내일로 미룬 것이 우리 알자스의 가장 큰

불행이었지. 이제 저 프러시아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거다. ‘뭐야, 프랑스 말을 읽을 줄도 쓸 줄도 모르면서 프랑스 사람이라고?’ 하지만 프란츠야, 그것은 네 잘못만은 아니란다. 우리들 모두가 스스로 반성해야 해. 너희 부모님들은 너희들이 열심히 공부하도록 애쓰지 않았어. 몇 푼 더 벌겠다고 너희들을 발이나 실 뽑는 공장으로 일하러 내보냈지. 그렇다면 나 자신은 반성할 일이 없을까? 가끔 공부 대신에 정원에 물을 주는 일을 시켰었지? 송어 낚시를 가고 싶으면 망설이지 않고 너희들을 쉬게 했었지…….”

그러고 나서 아멜 선생님은 프랑스 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다. 그것은 프랑스 말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분명하고, 가장 훌륭한 말이라는 것, 따라서 우리는 그 말을 잘 간직하고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 한 민족이 노예가 되더라도 자기 나라의 말만 지키고 있으면, 그것은 감옥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 등등…….

그리고 선생님은 문법책을 들고 우리가 배울 부분을 읽어 주셨다. 나는 내가 이처럼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데 놀랐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이 금방 이해되었다. 하긴 나는 그토록 정신을 집중하고 귀를 기울여 수업을 들은 적이 거의 없었다. 가엾은 선생님은 마치 떠나시기 전에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모두 가르쳐 주시려는 듯했고, 한꺼번에 우리의 머릿속에 넣어 주시려는 것같이 느껴졌다.

문법 시간이 끝나고 쓰기를 시작했다. 그 날 아멜 선생님은 새로운 글씨본을 준비해 오셨는데, 거기에는 예쁜 글씨체로 ‘프랑스, 알자스, 프랑스, 알자스’라고 써어 있었다. 그것은 교실 가득히 휘날리는 책상에 매달린 조그만 깃발 같았다.

그때 모두들 얼마나 열심히 쓰고, 얼마나 조용했든지. 오로지 종이 위에서 펜이 움직이는 소리만이 들렸다. 잠시 풍뎡이 몇 마리가 날아 들어와 웅웅거렸지만 누구 한 사람 신경 쓰지 않았다. 꼬마들까지도 온 정성을 쏟아 용기와 신념으로 프랑스 글자의 한 획 한 획의 사선을 긋는데 열중했다…….

학교 지붕 위에서는 비둘기들이 작은 소리로 울고 있었다. 구구구구.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그들은 저 비둘기들에게조차 독일말로 지저귀라고 강요하지 않을까?’

가끔씩 책에서 눈을 들어 보면 아멜 선생님은 교단에서 꼼짝하지 않고 계셨다. 마치 이 조그만 학교의 모든 것을 눈 속에 넣기라도 하려는 듯이 주위의 물건들을 응시하고 있었다…….

아멜 선생님은 지난 40년 동안을 늘 운동장이 바라다 보이는 자리에서 지내셨다. 달라진 것이라곤 오래 사용해서 이제는 낡을 대로 낡은 책상과 결상, 키가 훌쩍 자란 호두나무. 이제는 창과 지붕을 가릴 정도로 뻗어 있는 선생님이 손수 심은 호프나무뿐이었다.

이 모든 것들을 떠나야 하고, 위층 방에서 짐을 싸느라 왔다갔다하는 누이동생의 발소리를 듣는 것이 이 가엸은 선생님에게는 얼마나 슬픈 일일까? 선생님과 누이동생은 내일이면 영원히 이 곳을 떠나야만 한다.

그런데도 선생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수업을 계속하였다. 쓰기 다음에는 역사를 공부했다. 그런 다음 꼬마들은 다 함께 ‘바·베·비·보·부’를 노래했다.

교실 뒷쪽에서는 오제 영감님이 안경을 끼고 《아베세 독본》을 두 손으로 들고 아이들과 함께 한 자 한 자 천천히 읽었다. 그 역시 열심이었으며 부푼 감동으로 목소리가 떨렸다. 그의 목소리는 몹시 우스꽝스러워서 우리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몰랐다.

아! 나는 이 마지막 수업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때마침 교회의 괘종 시계가 정오를 알렸다.

그리고 알젤뤼스(아침, 점심, 저녁 기도식)를 알리는 종소리. 그와 동시에 훈련을 끝내고 돌아오는 프러시아 병사들의 나팔 소리가 창 바로 밑에서 울려 퍼졌다.

아멜 선생님은 창백한 얼굴로 교단에서 일어섰다. 그때처럼 선생님이 커보인 적이 없었다.

“여러분.”

선생님은 입을 열었다.

“여러분. 나는... 나는...”

선생님은 목이 매어 끝내 말을 맺지 못했다. 그리고 칠판 쪽으로 돌아서더니 분필 한 개를 집어 들고는 있는 힘을 다해서 커다랗게 글씨를 썼다.

“VIVE LA FRANCE(프랑스 만세)!”

그리고는 한참을 벽에 머리를 기댄 채 서 있다가 말없이 우리에게 손짓을 했다.

“이제 다 끝났어……모두 돌아가거라…….”

단 어

감돌다(동,자)萦绕

강요하다(동,타)强迫

게시판(명)布告牌, 启示板

게재되다(동,자)登载, 刊登

견습공(명)徒弟

광장(명)广场

교단(명)讲台

교탁(명)讲桌

구령(명)口令

군인(명)军人

글씨본(명)字帖

기대다(동,타)倚靠

누이동생(명)妹妹

대장간(명)铁匠铺

독일어(명)德语

감미롭다(형)甘美, 甜蜜

걸상(명)板凳, 椅子

게시하다(동,타)告示

겨드랑이(명)腋下, 胳肢窝

고요(형)宁静, 寂静 ~하다(형)

괘종(명)挂钟

교정(명)校园

구구구구(감)咕咕(鸡或鸽子的声音)

군사령부(명)军队司令部

규칙(명)规则

글씨체(명)字体

나팔(명)喇叭

누우치다(동,타)悔悟, 懊悔

독본(명)读本

두드리다(동,타)捶, 敲打

두려움(명)恐惧, 畏惧
 때마침(부)正好, 正巧
 레이스(명)花边
 리페르(지명)里佩尔
 맞이하다(동,타)迎接
 면장님(명)镇长
 문법책(명)语法书
 바시텔(인명)华希特
 벌받다(동)受罚
 베를린(지명)柏林
 봉사하다(동,자)服务
 북새통(명)乱哄哄的场合, 乱哄哄的样子
 분필(명)粉笔
 빼놓다(동,타)漏掉, 丢下
 사르강(명)萨尔河
 살그머니(부)悄悄地
 상장(명)奖状
 성서(명)圣经书
 소리치다(동)高喊
 송어(명)鲑鱼
 쇠자(명)铁尺子
 숨(명)呼吸, 气
 신경쓰다(동)费脑筋, 神经过敏
 아멜(인명)韩麦尔
 알자스(지명)阿尔萨斯
 어차피(부)无论如何, 迟早
 여닫다(동,타)开了又关
 영원히(부)永远
 오제(인명)郝叟
 왁자지껄하다(형)闹哄哄, 骚乱

따분하다(형)枯燥无味
 뛰어들어가다(동,자)跑进去, 跳进去
 로렌(지명)洛林(法国北东部的一个地方)
 맑소사(감)天啊
 면사무소(명)镇公所
 명령(명)命令 ~하다(동,타)
 바라다보이다(동,자)望得见, 眺望
 반성하다(동,타)反省
 벌판(명)田野, 原野
 벨벳(명)天鹅绒
 부풀다(동,자)肿胀, 充满
 분사(명)分词
 비틀다(동,타)扭, 拧
 빼먹다(동,타)漏掉, 丢下
 사선(명)斜线
 삼각모자(명)三角帽
 새삼스럽다(형)格外, 特别, (记忆)犹新
 성장(명)盛装
 손수(부)(对长辈)亲自, 亲手
 쇠막대기(명)铁戒尺
 수여하다(동,타)授予
 숲(명)树丛, 草丛
 신념(명)信念
 아무쪼록(부)无论如何, 一定要
 어마어마하다(형)可怕, 吓人
 얻어맞다(동,자)挨打
 열심(명)努力
 예복(명)礼服
 올려놓다(동,타)放在上面
 왔다갔다하다(동,자)来回走

외우다(동,타)背诵
 위층(명)楼上
 유혹(명)诱惑 ☞~하다(동,타)
 응시하다(동,타)凝视
 잔주름(명)细皱纹
 장학관(명)督学
 제각기(부)各自
 제재소(명)木材厂
 좀더(부)再加
 종소리(명)钟声
 쥐다(동,타)抓住, 握住
 지나치다(동)经过
 집배원(명)邮递员
 차려입다(동,타)穿戴, 打扮
 창피하다(형)丢脸, 羞愧
 첫마디(명)第一句
 큰길(명)大路
 틈타다(동)趁机
 패전(명)战败
 풍뎡이(명)金龟子, 金甲虫
 프리시아(명)普鲁士
 하긴(부)说实在的, 其实, 那倒是
 한결같이(부)一致地, 始终如一
 헛되이(부)白白地, 徒然地
 호두나무(명)核桃树
 화창하다(형)和暖, 和煦
 훈련(명)训练 ☞~하다(동,타)
 휘날리다(동,자)飘扬

우스꽝스럽다(형)可笑
 웅웅거리다(동,자)嗡嗡地响
 은퇴하다(동,자)退休
 자막대기(명)标尺
 장식(명)装饰 ☞~하다(동,타)
 정오(명)正午
 제자리(명)原地
 조국(명)祖国
 좀처럼(부)不容易(后接否定形式)
 줄줄(부)流利地
 지각(명)迟到 ☞~하다(동,자)
 지치다(동,타)滑(冰)
 징발(명)征收, 征用☞~하다(동,타)
 창백하다(형)苍白
 찾아다니다(동,타)到处寻找
 초록빛(명)绿色
 테(명)边儿, 沿儿
 티타새(명)斑鸠, 画眉
 펴놓다(동,타)铺开
 프란츠(인명)弗郎士
 프록코트(명)礼服, 男性半大衣
 하필(부)偏偏, 何必
 헐떡거리다(동,자)气喘吁吁
 헤어지다(동,자)分手, 告别
 호프나무(명)紫藤
 획(명)笔画
 훌쩍(부)一下子, 忽地
 힘껏(부)尽力, 用力

문법과 단어 사용 설명

1. -려는데

“-려는데”는 “-려고 하는데”가 축약된 형태로, 그 앞에 오는 동사가 나타내는 행동을 하고자 하는 때 그 뒤의 행동이 나타남을 의미한다.

㉠ 내가 막 광장을 지나가려는데 할아버지가 내게 소리쳤다.

(我正想穿过广场的时候, 大爷向我喊。)

㉡ 내가 교실로 가려는데 친구가 찾아왔다.

(我想上教室的时候朋友来找我了。)

㉢ 우리가 거리로 가려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我们正要上街的时候, 开始下雨了。)

2. -ㄴ 뻔하다(관용구)

“자칫하면 그 앞에 오는 동사가 나타내는 형편에 이르겠으나 결국은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뜻을 나타낸다. 많게는 “하마터면 ... -ㄴ 뻔하다”의 격식으로 쓰인다.

㉠ 너를 빼놓고 수업을 시작할 뻔했구나.

(差一点丢下你开始上课了。)

㉡ 배고파 죽을 뻔했다.

(饿得差一点要死。)

㉢ 하마터면 강에 떨어질 뻔했다.

(险些掉进河里。)

3. -던가(종결어미)

종결어미 “-던가”는 지난 일에 대한 의문, 강조, 추측 등을 나타낸다.

㉮ 하나도 틀리지 않게 줄줄 외울 수 있기를 얼마나 바랬던가!

(多么希望能够一字不差地背个熟啊。)

㉮ 어제 우리가 무얼 했던가?

(我们昨天干什么来着?)

㉮ 그 곳이 얼마나 아름다웠던가!

(那个地方多美啊!)

4. 곤(축약형태)

“곤”은 어미 “-고”와 조사 “-는”이 합쳐진 “고는”이 축약된 형태로서 그 앞의 사실을 강조한다.

㉮ 달라진 것이라곤 책상뿐이다.

(变化了的只有桌子。)

㉮ 사람이 밥만 먹곤 살 수 없다.

(人不能只为了吃饭而活。)

㉮ 책가방을 놓곤 밖으로 나갔다.

(放下书包就出去了。)

5. -느라(어미)

“-느라”는 어미 “-느라고”가 축약된 것으로서 의도적으로 한 앞의 행동이 뒤의 사실의 원인으로 됨을 나타낸다.

㉮ 그가 짐을 싸느라 왔다갔다한다.

(他因打行李来回走动。)

㉮ 그는 요즘 시험을 보느라 바빠 보낸다.

(他最近因为考试很忙。)

알아둡시다.

1. 문장성분

문장성분이란 문장을 이루는 데서 일정한 역할을 하는 요소이다.

㉮ 나는 학교에 간다.

위의 문장은 “나는”, “학교에”, “간다”의 세 어절로 이루어졌다. 즉 “나는”은 “간다”라는 행동을 하는 주체가 되고, “학교에”는 “간다”는 행동이 미치는 장소로 되고, “간다”는 주체가 하는 행동을 나타내면서 문장을 끝마친다. 그러므로 이들이 서로 다른 역할을 하면서 긴밀하게 얹히어 “나는 학교에 간다”는 문장을 이루었다. 이와 같이 문장을 이루는 요소로 된 “나는”, “학교에”, “간다”가 문장성분으로 된다.

한국어 문장성분에는 서술어, 주어, 목적어, 보어, 관형어, 부사어, 독립어가 있다. 이 가운데에서 문장의 형성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서술어이다.

2. 주어부와 서술부

㉮ 우리 교실은 매우 깨끗하다.

위의 문장의 네 성분이 다른 성분과 맺는 관계의 긴밀성의 정도가 차이가 있다. 이들의 긴밀성 관계를 단계적으로 표시하면 아래와 같다.

㉮ 우리 교실은 매우 깨끗하다.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먼저 “매우”와 “깨끗하다”, “우리”와 “교실은”이 결합되고 그 다음 “매우 깨끗하다”와 “우리 교실은”이 결합된다. 이와 같이 문장은 먼저 크게 두 개 부분으로 나누고 다시 더 작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이 때 크게 나뉜 부분의 “우리 교실은”이 주어부가 되고 “매우 깨끗하다”가 서술부가 된다.

연 습

1. 아래의 단어들로 단문을 지으라.

기대다	느껴지다	맞이하다
봉사하다	빼놓다	살그머니
신경쓰다	제각기	한결같이

2. 알맞은 조사나 어미들을 써넣으라.

- (1) 내가 막 교실에 들어가() 선생님이 나를 부르시었다.
- (2) 산불이 지나간 다음 남아있는 것이라() 나무 그루뿐이다.
- (3) 그 날 나는 강에서 미역을 감() 수업을 빼먹고 선생님께 꾸지람을 들었다.
- (4) 우리 몇 사람은 일요일마다 낚싯대를 들() 강이나 못을 찾아다녔다.
- (5) 선생님은 화를 내시기() 나를 조용히 타이르셨다.
- (6) 비행기가 활주로에 내려 앉() 갑자기 누군가 활주로에 뛰어들었다.
- (7) 집을 떠난 지 2년이나 되었지만 달라진 것이라() 머리가 긴 것뿐이다.
- (8) 아버님까지 돌아가시자 나에게는 혈육이라() 형님밖에 없었다.

3. 알맞은 단어를 고르라.

- (1) 차에서 내린 우리는 () 숲 속으로 들어갔다.
(떠들썩한, 고요한, 복잡한)
- (2) 철수는 끝내 자기의 잘못을 ()고 훌륭한 학생으로 되었다.
(깨닫, 알, 뉘우치)